오늘의 작품

■ 김상연 작 '공존(Coexistence)'

원숭이 통해 문명사회 풍자

광주에서 활동중인 김상연씨는 한국화의 전통적인 재료인 한지를 여러겹 붙인 화면에 수묵을 덧칠하는 기법을 통해 동양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비엔날레 출품작인 '공존(Coexistence)'은 원숭이를 형상화한 종이 인형 5천여개를 넝쿨처럼 공중에 늘어뜨린 설치작품. 인간이 상실한 자유의 상징으로 원숭이를 선택함으로써 개별화, 문명화된 인간사회의 상황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원숭이는 외롭게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인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작품의 배경으로 소파를 마주보게 배치한 뒤 이를 극단적으로 확대한 회화를 벽면에 세워 권력, 욕망 등을 표현했다.

김씨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와 중국 항주 국립중국미술학원 대학원을 거친 뒤 동양화의 현대화를 추구한 실험적인 작업을 펼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비엔날레 (18일)

▲무진주 문화마당=오전 10시~오후 6시, 민속박물관 1관. 사이버문학인협회의 시화전, 시낭송.

▲솟대 전시=오전 10시~오후 6시, 민속박물관 1관. 개막식에 선보인 솟대 조형물과 다양한 개성의 솟대 50 여점 전시.

▲시사이 공연=오후 2시·3시·4시, 빛 카페. 에콰도르 민속그룹의 음악 공연.

함평고 장용준 교사 문화재 해설서 '박물관 속에…' 펴내

아이들 눈 높이 맞춘 문화유산 '길라잡이'

함평고 장용준(44) 교사는 '전국구 선생님'으로 통한다. 지난 2004년 우리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되는 우리 역사이야기'를 출간해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꽤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장 교사가 옛 문화재를 쉽게 풀어쓴 두번째 책을 발간했다. '박물관 속에 숨어있는 우리 문화이야기'(살림 펴냄)가 그것으로 옛 그림편과 옛 도자기·금속 공예편 등 두 권으로 구성됐다.

1권인 옛 그림편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바위그림'에서 조선시대 '김정희의 세한도'까지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그림 문화재 11개를 다루고 있다. 2권에서는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분청사기철화당초문장군', '금동반가사유상' 등 13개의 도자기·금속 공예품에 대해 설명한다.

장 교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권장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책들이 너무 어려워 권장만 할 뿐 학생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쉽게 써서 읽도록 하고 싶었다"며 "주 독자층을 중학생으로 삼고 썼다"고 책을 쓰게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책은 저자인 '장콩선생'과 '참치', '늘보거북' 등 두 아들의 대화체로 쓰여져 있어 더욱 친근하다.

대화체 형식으로 쉽게 풀어 써

'중학생용 5·18교과서' 작업중

'장콩선생'은 17년 간 재직중인 함평고 제자들이 15년 전 키가 작은 그의 특성을 감안해 만들어 준 별명이다. '참치'는 큰 아들 동원(14), '늘보거북'은 작은 아들 치원(10) 군의 별명이다. 책에서 이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다.

장 교사는 "책을 대화체로 한 이유는 수업 중에 발문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학생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편이라 글을 쓰기 편했기 때문"이라며 "서술체 문장으로는 문장 구성상 빠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야기꺼리를 이곳저곳에서 틈틈이 들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펴낸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되는 우리 역사이야기'(전 2권·살림 펴냄) 역시 '쉽게' 씌여있어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책은 현재 6만부 가량 팔린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가 정하는 청소년 권장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가족과 한 번, 역사교사모임에서 한 번 등 한 달에 두 차례는 문화유적 답사에 나서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 책의 후속 시리즈 성격으로 탑과 부조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고 싶다고 했다. 장 교사는 현재 5·18기념재단의 의뢰를 받아 '중학생용 5·18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는 2007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장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정치사에 편중돼 있어 문화사가 외면당하는 현실일 뿐 아니라 그나마 배우는 문화사도 유물의 이름이나 특징을 '달달' 외우는 형편"이라며 "이 책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화 유산을 보는 지식과 안목을 기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100억원대 '마릴린' 한국 온다

앤디 워홀 대표작 '오렌지 마릴린' 20~24일 서울 순회전

미국의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1928~1987)의 대표작인 '마릴린'시리즈 중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오렌지 마릴린'〈사진〉이 한국에 온다.

50×40㎝ 크기 오렌지색 캔버스에 금발의 마릴린 먼로를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찍어낸 작품으로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올 11월 뉴욕에서 개최하는 '전후&동시대'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다.

경매에 앞선 프리뷰 형식으로 서울과 홍콩에서 순회전시되는 이 작품의 추정가는 1천만~1천500만달러, 한화 95억6천만~143억400만원에 달한다고 크리스티 한국사무소는 17일 밝혔다.

이 작품 이외에도 워홀의 또다른 인기작인 '골드 재키', '플라워스'를 비롯해 톰블리, 티보의 유화 1점씩과 올덴버그의 조각 1점 등 총 6점이 20~24일 종로구 팔판동 크리스티 한국사무소에서 전시된다.

美 'LA코리아센터' 개관 축하 무대

소프라노 정애련 교수

소프라노 정애련(전남대 음악학과·사진) 교수가 미국 LA 코리아 센터 개관 기념 축제 무대에 선다.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정 교수는 오는 30일 센터 아리홀에서 미국 LA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창회를 갖을 예정이다.

미국 내 문화산업 중심지에 위치한 'LA 코리아 센터'는 한국의 문화·관광·문화산업을 알리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개관한 곳으로 이번 축하 행사는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정 교수는 이번 공연에서 아름다운 한국 가곡과 가스펠송, 오페라 아리아 등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상록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게 되며 컴퓨터 음악을 전공한 박진영씨가 함께 공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에딘버러가 주는 교훈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600여km를 달리다 보면 에딘버러라는 고색창연한 도시가 나온다.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였던 에딘버러는 도시 곳곳에 유서깊은 유적지와 장엄한 자연풍광이 펼쳐져 흔히 '북방의 아테네'로 불린다. 인구는 약 45만여명. 그나마 북쪽에 치우쳐 있는 입지조건 때문에 인구가 매년 줄어들어 얼핏 쇠락한 고도(古都)처럼 보인다.

하지만 매년 8월로 접어들면 에딘버러는 '딴 세상'이 된다. 전 세계 유명 예술인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에 모여 신명난 축제한마당을 펼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유명한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다. 올해로 60주년인 이 페스티벌은 매년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모두 11개의 축제가 어우러져 도시 전체를 '한 여름 밤의 향연'으로 이끈다. 축제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0여개의 작품이 무대에 오르고, 150여만장의 티켓이 판매된다. 이쯤되면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될지 대략 감이 잡힌다.

그런데 올해는 그 위세가 예전같지 않다고 한다. 맨체스터와 리버풀, 뉴캐슬 등 여러 도시들이 유사한 공연예술축제를 새로 시작하면서 에딘버러로 향하는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단박에 이상기류(?)를 감지한 에딘버러 조직위는 '넘버 1'을 고수하기 위한 묘안찾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먼나라 이야기'이지만 에딘버러의 위기는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의 처지가 영락없이 에딘버러와 닮았기 때문이다. 창설 12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소년티를 채 벗기도 전에 부산비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등 크고 작은 후발 비엔날레들이 생겨나면서 '맏형'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 개막한 제3회 부산비엔날레의 경우 성격이나 행사기간 등이 엇비슷해 관람객 유치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광주만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부산영화제와 연계한 시너지 전략이나 상대적 우위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부산비엔날레의 마케팅은 위력적이기까지하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 재단의 분위기는 의외로(?) 느긋하다. 대외 인지도나 노하우 면에서 부산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려면 아직 멀었다는 입장인 듯 하다. 하지만 세계예술축제의 종주를 자임해온 에딘버러의 위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 아무리 경쟁력 있는 축제라도 주변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공룡(?) 에딘버러 축제가 새까만 군소(群小) 개미축제들로 인해 속을 태우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 치
◉광주시 동구 대의동 39-1(동부서뒤)
대 지
◉136평 건평 590평 (지하1층,지상5층)
▶매도가◀ 협의결정
-연락처- 010-4610-3763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림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충장로 대지 50평 4층건물 26억
·충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금남로 도청옆 70평 5층 20억
·운림동 중심사도로접 3백평 170만
·남동 대지25평 3층건물 2억
·금호동 아파트밀집 대로접 330평 당350만
·광천동 터미널 대로접 2백평 당750만
·상무지구 상업지 120평 당1200만
·주월동 대동고 대로접 78평 4층 6억
·주월동 장미아파트앞 대2백평 당250만
·봉선동 삼익아파트옆 대82평 당250만
·용봉지구 3면도로 대360평 한식당 당250만
·송정동 전철역앞 대1800평 당350만
·하남 우산동 상업지 2백평 9억
·운남동 아파트밀집지 6층건물 27억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지산동 보전녹지 1천평 당35만(주택가)
·운림동 대280평 당40만
·운림동 보전녹지 전340평 당30만 (주택해당30평)
·광주댐 인근 대지, 전 5백평 주택1동 당50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임야 3천평 당5만
·화순 사평 들가집 8백평 주택1동 1억
·화순 동면 관리지역 임야5천평 당2만
·담양읍 자연녹지 4600평 2차선도로접 당1.5만
·화순 사평 대2백평 주택1동 4천만
기타 부동산
·운림동 개발제한구역 임야2만5천평 당3만
·소태동 임야1만3천평 주택1동 당1만5천
·담양 월산 임야6만평 당3천원
·화순 사평인근 계곡접 임야4만평 당2천원
·화순이양 계곡접 임야1만평 당2천원
·청풍동 4수원지인근 취락지 250평 당60만
·화정동 자연녹지 350평 당30만
·천단 신월동 자연녹지 750평 당50만
·선암동 호대원 자연녹지 9백평 당50만 4천평 5억(교환가)
※광주인근 관리지역 임야, 전, 답 구함
※함트주택 동호인을 모십니다

LC타워(주)
☎(代)972-8004, 핸 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유명메이커 운집
(급)종합학원 임대
3층 265평 A급
시설 완비
전화 상담 요망
【각층분할가능】
병·의원 임대
3층:88평, 212평 안과, 피부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학원및 사무실 임대
4층:88평, 140평 각종 학원, 사무실등
스카이 라운지
5층:222평 스카이라운지, 웨딩리셉스토랑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참신한 공인중개사 남·여 2명 모집중☎(代)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 경매낙찰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상담환영!!
1. 첨단지구 월계동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181평 준공1년된 건물 감정가 25억/최저가 12억
2. 화정동 터미널뒷편 현재 장례예식장으로 운영중임 7층건물 대지300평 감정가 35억/최저가 15억
대물로 받은 아파트 5채 긴급매매
1. 용봉동 현대아이파크 57평형 아파트 분양가 2억9천6백 49평형 분양가 2억3천7백, 대물로 받은 부동산 긴급처분(분양가 이하로 매매가 조정 가능)
A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광업교4거리 주유소옆 건물6층 대지71평 임대중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적합 등록2지구 개발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 3천(주인사정상 긴급매매)
2. 농성동 상공회의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정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감정가50%공시지가50% 이하물건 긴급매매
1. 금동 호텔백화점 2층 450평 감정가 18억 매매가 6억
2. 신안동 5층건물 감정가 27억 매매가 16억(부동산 교환도 가능)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급매
1. 서구 풍암동 자연녹지 7,400평 인도화골프연습장, 최신시설 완비, 현재 성업중임 매매가 60억/ 주변지역 개발가능성이 높은지역
2. 학동 6,500평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주인사정상 급매 매매가 55억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1.동림동→신가리 방면 생산녹지 1,050평 매매가 평당 40만원 공장·창고·야적장 기타 근린시설 신축부지 적합
2.광산구 고룡동, 잔곡동, 하남 제2산단 수용예정지역 1,300평 평당 15만원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급히 구합니다 ▶
【건 물】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 가능한 건물 현금15억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 지】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광산구 관리지역-삼도, 본량
◉평동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 급히 팝니다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창고부지
일곡동, 자연녹지, 424평, 25m도로에 접, 평당200만원
◉미특동 김대중컨벤션앞
생산녹지 908평, 평당180만원
◉매월동 유통단지 택지
농산물 공판장앞 261평, 평당600만원
◉카센타, 식당부지
광산구 소촌동, 영광간 35m도로변, 140평, 평당280평
◉모텔:첨단, 대지 198평 건평600평 객실30개 대출10억 매도가 25억
◉물류창고부지
자연녹지, 비아 인터체인지 인근, 2400평 평당75만원(분할도가능)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진동 주거지역
◉공장 창고부지(투자도가함)
관리지역, 광산구 양산동 1600평 대형차량 진입가 평당14만원
◉원룸부지:금호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광송 간 도로변 상가부지:61평 평당 750만원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예식장회원, 공무원, 경찰, 기타관공서, 각종기관단체직원 예식비 20% DC 중...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www.ccgwangju.co.kr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뷔페식으로...
■예약접수중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